양산시 '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' 전국 우수기관 선정

– 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 원동소하천 –
–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25억원 수령 –

• 경남 양산시(시장 나동연)는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12년 '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' 공모사업에서 원동소하천이 치수안정성, 친수경관, 생태 · 환경, 역사 · 문화, 주민참여 등 까다로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에서 응모한 69개 지방자치단체중 최우수 3개 자치단체중 한곳으로선정되었다.

• 이 사업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연장 1.5㎞를 자연석 호안 및 식생이 가능한 블록으로 설치하고, 보상토지의 잔여지를 이용한 수변공원, 휴식 공간, 가로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4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조성했으며, 제방을 이용한 산책로를 설치,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변모시켰다.

• 원동 소하천은 양산시 원동면 원리 소재지를 관통하는 소하천으로 하천주변 축사 · 양농 · 경작 등으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정비하여 원동초등학교 및 주거 밀집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였고,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취락 · 농경지 등 침수사례가 있는 지역으로서 전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및 사방댐 · 소류지 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등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해 생물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탈바꿈했다.

• 양산시는 소방방재청의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2013년 소하천 정비사업 인센티브로 국비 25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 받게 됐으며, 2013년 방재의 날에 국무총리의 기관 표창을 수여받게 됐다.

• 이밖에도 양산시는 소방방재청이 평가하는『물놀이 안전관리 업무평가』전국 최우수기관, 『재난관리 전반 업무평가』전국 우수기관, 『재해대책 업무평가』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어, 각 업무별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등 방재관련 주요업무평가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을 인정받고 있다.

■ 정비현황 사진